

## 역사적 서정주의

### 에 크 하 르 트

獨미술평론가

김병중의 유머러스하고 혹은 바보스러워 보이는 성인 연작들은 가슴에 와 닿은 기이한 느낌을 준다.

그는 서방 현대미술이 잃어버린 따스함과 휴머니즘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끝없이 가벼워지고 싶어하는 현대 미술의 속성을 무거운 주제와 정신성으로 통제해 내고 있다.

나는 그의 두번째 전람회, -베를린의 두곳 화랑에서 동시에 한달간 열렸던, -의 서문을 쓰게 된 인연과, 그의 베를린에서의 미술강연에 참여하여 한국회화에 대해 보고 듣게 된 일을 통하여 그와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캐톨릭이라는 인연등으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 보다 관심있게 그의 「사람」 연작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처음에 나는 그를 미술 외교관이나 미술 운동가쯤으로 이해하였다. 1989년 여름 베르린의 시립미술관에서 강연할 때 그는 자기나라 회화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호감을 유발시키려는 듯이 아주 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감동적이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한국 미술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주었던 것이다.

베를린에서의 그의 전람회는 슈피겔과 베르린 모겐 포스트 등에서 일제히 대서 특필해 주었을 만큼 성공적인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이면에는 재료가 지닌 이질성도 작용했을 것이다.

큰 동양붓으로 한번에 그리고 지나간 <흑색 예수> 연작들은 동아시아적인 것으로 부터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보편적 인간형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붓을 조금만 대고서도 그렇게 호소력있는 감정으로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확실히 인상적인 일이었다.

베를린에서만도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전람회가 열린다. 그러나 연말이 되어 결산해 보면 남겨지는 전람회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동양에서 온 젊은 작가의 <흑색 예수 붉은 눈물>은 많은 비평가와 저널리스트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게 되었다.

제3세계의 분노나 민중의 정서를 바탕으로 깔고 있지만 살벌함이 아닌 따뜻함으로 승화되는 모습들을 그는 <흑색 예수>를 통해 기발하게 환원해 내었던 것이다.

그런면에서 그의 그림에는 <시간의 계속성>과 <역사의 순환성>이 있다. 또한 서양이 아닌 그렇다고 동양으로만 설명되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나는 그의 그림이 결국 <따뜻함>으로 연결된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정말 그런것 같다.

어린이 그림같은 아기부처상, 가슴을 건드리는 고뇌에 찬 옆모습의 흑인예수 등이 모두 궁극으로는 <따스함>과 <사랑>으로 연결된다.

마술사처럼 때로는 동화적이고 때로는 격렬한 사고로 그는 그의인간상들을 다듬어 내는데 얼굴의 모습은 틀려도 그 속의 휴머니즘은 모두 동일하여서 작가가 예술을 통해 발휘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그의 그림은 서정주의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역사속의 인물들을 통해 휴머니즘을 일깨우는 역사적 서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성인> 그림들은 이 시대의 <흔하게 볼 수 있는 얼굴>들의 모습으로 환원되는 것이고 동시에 작가자신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병중의 다른 한 유형의 것에는 풍경이 있는데 나는 한국적 판타지를 그의 풍경속에서 들여

다 본다. 거기에는 꿈, 동화, 추억, 그리움 이  
러한 것들이 소나무, 돌, 구름, 새, 꽃 등을 통  
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옛 그림에 자주 나오는 10가지  
오래 산다는 소재나 혹은 그 자신 독특한 한국  
현대 회화의 원전이라고 강연에서 소개했던 한  
국민화의 정신을 따라 개화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그의 풍경 역시 <인간주의적>이  
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것들은 모두가 <실제>보  
다는 상상력의 소산인 것이다.

인간과 자연을 통해 그의 일시적인 것,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영원한 것, 보다 공

적적인 가치 같은 것을 표현하려는 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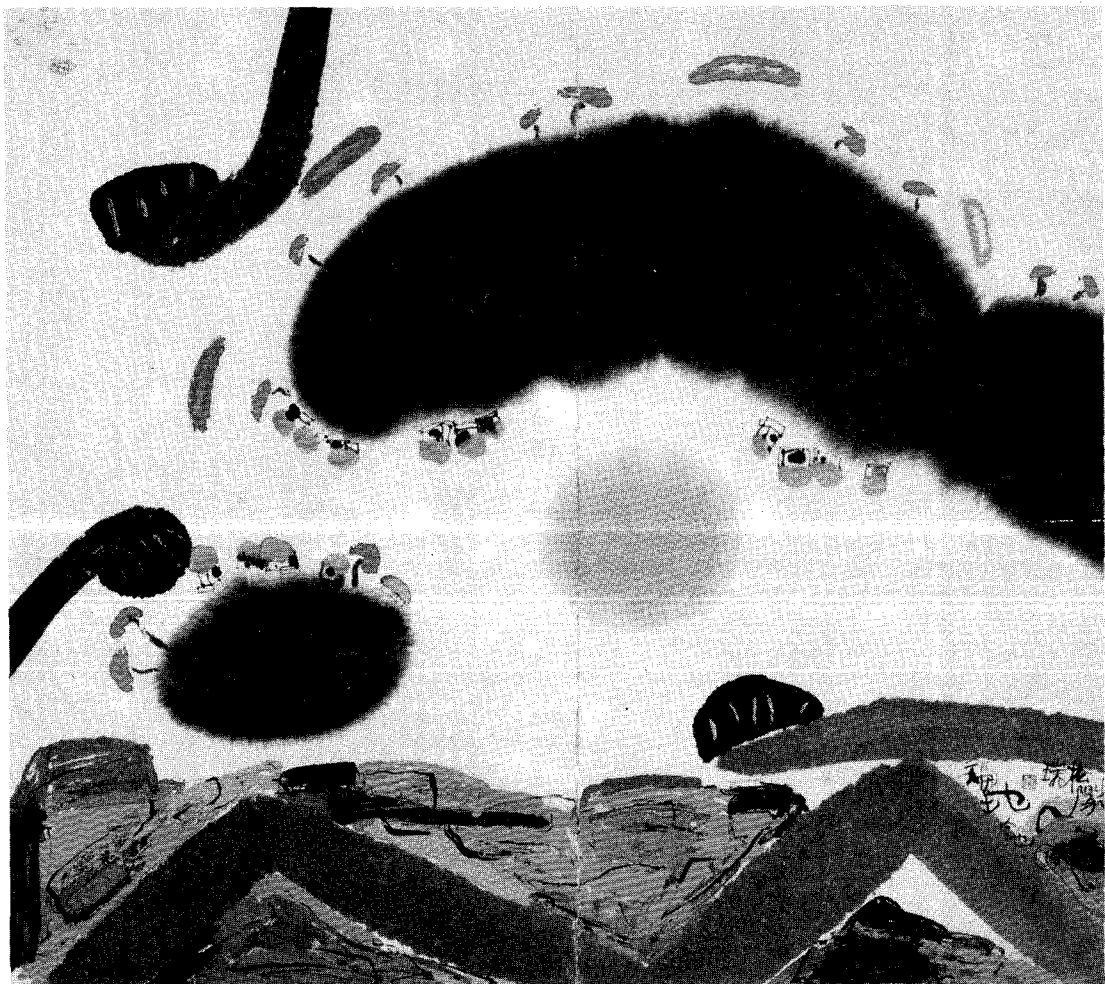
영원한 것은 시간과 지역을 초월한다. 따라서  
그가 그린 성인 연작도 어떤 개별 범주로 나누  
어지지 않는다.

흑색예수나 아기불은 종교적 범주로 나누어지  
지 않고 풍경 또한 한국의 어느 곳이라는 식으  
로 분류되어지지도 않는다. 아주 둥글고 커다란  
포괄속에서 서로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그의 그  
림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질성들도 하나로 조화할 수 있다는 것—조  
형의 생각이나 기법 소재 등에 있어서—은 확실  
히 인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성자 (종이에 먹과 채색) 92×88 김병중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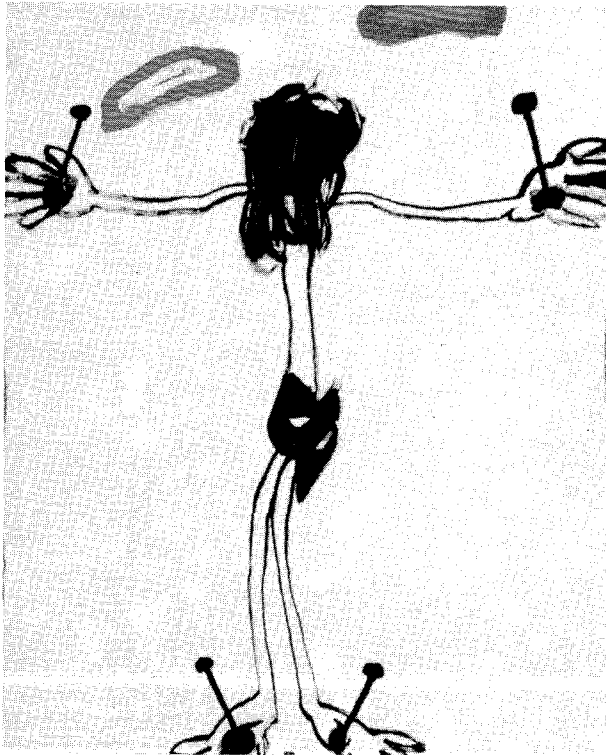
생명의 노래 (종이에 먹과 채색) 120×108 김병중 작

이름과 녀(아기불) 72×88  
김병중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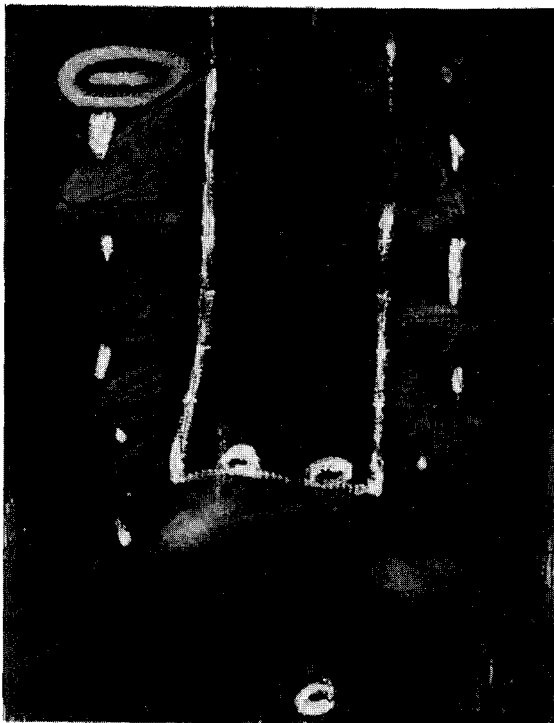


어린성자 92×88  
김병중 작





이름과 닳—육은 메마르고  
72×86 김병중 작



이름과 닳—블랙 지저스  
김병중 작